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논문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들 간의 이해상충



2019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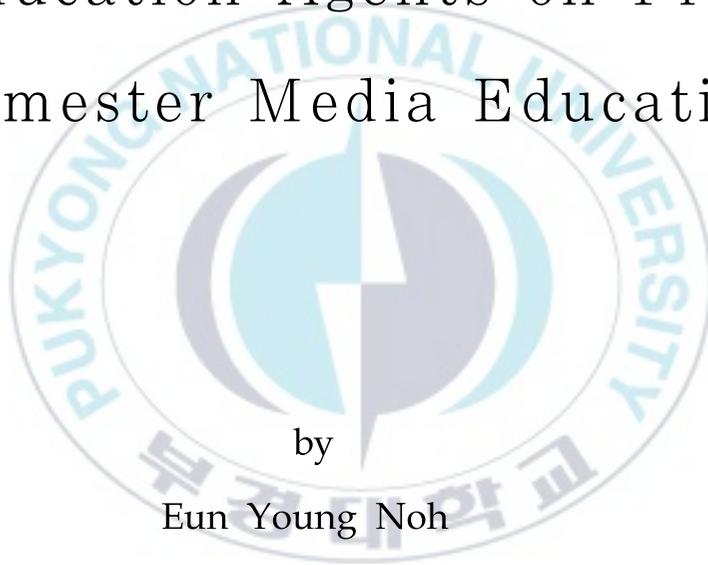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노 은 영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flicts of Interest for  
Education Agents on Free  
Semester Media Education



by

Eun Young Noh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2, 2019

신문방송학 석사학위논문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들 간의 이해상충

지도교수 이 상 기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노 은 영

Conflicts of Interest for  
Education Agents on Free  
Semester Media Education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들 간의 이해상충)

Advisor: Prof. Sang Ki Lee

by

Eun Young No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2, 2019

노은영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위원장 철학박사 김용호 (인)

위원 정치학박사 한혜경 (인)

위원 문학박사 이상기 (인)

# 목 차

I .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II . 이론적 배경 .....	4
1.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목적 .....	4
1) 미디어 교육의 정의 .....	4
2) 미디어 교육의 목표 .....	6
3) 미디어 교육의 내용 .....	8
2. 미디어 능력 관점에서의 미디어 교육 .....	11
1) 미디어 능력 개념의 이해 .....	12
2) 미디어 능력의 네가지 구성범주 .....	15
3.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	21
1) 학교와 미디어 교육 .....	21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	23
3) 자유학기제 영상제작 교육 .....	27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29
1.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	29
2. 연구방법 .....	31
Ⅳ. 연구결과 .....	34
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현황 .....	34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 .....	37
3.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 .....	47
4.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제안점 .....	53
Ⅴ. 결론 및 한계 .....	59
참고문헌 .....	63
부    록 .....	68
〈국문초록〉 .....	76

## 그림 목 차

〈그림1〉 전통적인 미디어 교육의 개념 .....	10
〈그림2〉 미디어 교육의 개념 확장 .....	11
〈그림3〉 미디어 능력 .....	16
〈그림4〉 미디어 교육 방법과 교육목표 .....	19

## 표 목 차

〈표1〉 미디어 교육의 목표 차원 .....	12
〈표2〉 미디어 교육의 내용영역 설계 .....	14
〈표3〉 미디어 능력의 범주 구분 .....	21
〈표4〉 미디어 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	24
〈표5〉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구성 예시 .....	29
〈표6〉 자유학기활동 구성 예시 .....	30
〈표7〉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31
〈표8〉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성 및 특징 .....	36
〈표9〉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 인터뷰 참여자 구성 및 특징 .....	37
〈부록 표1〉 2017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73
〈부록 표2〉 2017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교육 현황	74
〈부록 표3〉 미디어제작실습 제작교육 커리큘럼 (16차시) .....	76
〈부록 표4〉 광고 제작교육 커리큘럼 (8차시) .....	78
〈부록 표5〉 영화 제작교육 커리큘럼 (12차시) .....	79

Conflicts of Interest for Education Agents on Free Semester  
Media Education

Eun Young Noh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ree semester system of media education from a holistic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oals, content, and problems of free education in media education in Busan and Gyeongnam, where the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dispatched instructors in 2017. Also, teachers in charge of free semester system media education at schools inquired what they thought.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are as follows. At present, the free semester system of media education has not been conducted in a balanced manner.

Free semester system media education has a tendency to focus on improving students' production skills and to be relatively neglected in improving critical and problem-solving skills.

Media instructors have shared the need for literacy education to enhance students' critical ability, but they have not been fully realized in actual education.

First, we can find out why media education is still

systematic and long-term educ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in public education.

Second,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which supports free-semester media education, is sending instructors mainly on video-production educa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teachers still consider media education as a media-use or production education has also affected the current media education format.



# I .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4시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시대, 국내 인터넷 신문사 6,360여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대이다. 또한, 개인이 혼자서 콘텐츠를 기획해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초등학생의 경우 '1인 크리에이터'가 장래희망 5위로 자리잡기도 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이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아 제공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현대인에게 미디어는 정보습득 도구뿐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김양은, 2005).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를 통솔하고 제어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고 있다. 미디어를 권 자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면서, 거대 자본가들이 속속 언론사를 사들였고, 미디어 세상에서 현실을 재구성해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활용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비단,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며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폰을 접해온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흑백TV로 위안을 받았으며, 현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제때 쫓아가기 버거운 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미디어의 다양한 내용과 형

식, 사용하는 방법과 능동적 이용법까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유독 세대별 격차가 큰 미디어 이용과 활용의 격차를 줄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미디어와 개개인의 삶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파편화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체계화하고,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정춘 외, 2007), 사람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태어나면서 부터 갖고 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자라면서 스스로 깨우치거나 향상되는 것도 아닌 만큼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미디어 교육이 정착된 유럽에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에 접근해 왔다. 유럽연합은 2006년 시민들이 학습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y)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역량은 업무, 레저, 고용, 학습, 사회 편입, 사회 참여와 관련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것이 사회와 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권리라고 보는 시각까지도 존재한다(Ferrari, 2012).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디지털 기술이 시민사회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수용, 책임 있는 이용과 활용을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디어 교육이 필수조건이 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게 된 미디어 교육은 현재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교육과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지난 2017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부산·경남지

역 18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안에서 어떤 교육들이 행해졌고 교육주체(미디어 강사, 미디어 담당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한계, 제안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목적

#### 1) 미디어 교육의 정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education through media)”를 포함해서 “미디어와 함께 하는 교육(education with media)”까지 여러 개념이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디어를 이해시키는 교육이다. 미디어의 정의와 매체별 특성, 미디어의 영향력과 메시지의 분석과 비평, 미디어산업과 이용자의 권리까지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다(김양은, 2005).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 제대로 다루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 할수 있다. 미디어 교육의 개념은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시대마다 여러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초창기 미디어 교육은 독립된 교육의 영역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과의 연계속에 시청각 교육이나,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방송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다가, 1970년대 들어서야 독자적 영역으로 중요성이 부각된다. 유네스코가 1973년에 미디어 교육 보고회를 목적으로 조직한 IFTC 국제영화텔레비전심의회(International Film Television Council)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이란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는 연구로서 커뮤니케이션과 표현매체를 교육의 이론과 실천 안에 있는 지식의 전문적이고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학, 과학, 지리학과 같은 다른 지식의 영역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보조로 사용되는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영역이다(출처: Unesco, 1973).”*

이 정의처럼 전통적인 미디어 교육은 교육학의 기반과 커뮤니케이션 즉,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2개의 축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되었다(김양은 2009).



〈그림1〉 전통적인 미디어 교육의 개념 (출처: 김양은, 2009)

하지만 각종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사회여건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의 토대가 변화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개념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올바른 미디어 읽기와 활용 능력이 강조되면서 ‘미디어 이용과 활용’에 중점을 둔 ‘미디어 능력’ 향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의 개념 정의 또한 대체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양은(2007)은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인쇄물이나 청각, 비디오를 통한 메시지,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해서 전달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나아가 스스로 이런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 설명한다. 문혜성은(2004)는 미디어 교육을 문화비평적 미디어 교육으로 바꿔 말할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회 속에서 인간과 미디어가 함께 하는 교육 형태 또는 환경조성으로 이야기 할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와 관련해 인간이 비평적이고 성찰적인 시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게 하고, 또 올바른 미디어 행동을 하게 이끌어 주는 교육이라고 설명한다. 김기태(2007)는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늘어나는 역기능적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 의식을 바탕으로 자립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주체적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그림2〉 미디어 교육의 개념 확장 (출처: 김양은, 2009)

현재 우리의 미디어 환경은 수많은 방송 채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유무선망,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지상파, 편파 시비의 중편, 인터넷 막말과 여론 조작, 중독과 개인 정보 유출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많은 정보와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론적 토대의 변화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념도 재정의되고 있다.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미디어 교육의 토대로 제시된 교육학 이외에도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 다양한 학문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결국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요약해 보면, 미디어 교육이란 올바른 매체이해와 수용교육인 동시에 주체적인 창조와 활용교육이며,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를 인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인 것이다(김기태, 1988).

## 2) 미디어 교육의 목표

미디어 교육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미디어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것이고, 미디어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효율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오락성을 느끼고 스스로의 욕구가 존중되며, 즐거움이 강조되는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김양은(2007)은 급변하는 국내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형태의 멀티미디어기가 이용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활용'을 유도하는 '미디어 능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미디어를 도구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의 향상에만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자, 사회 전체가 성찰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구분	세부내용
미디어 지식 습득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 습득을 지향.
미디어 선별적 이용 능력	미디어 사용능력과 읽기 능력 향상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미디어 선택과 이용에서의 개인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미디어 메시지 해독능력	미디어 읽기 능력 향상에 목표. 구체적으로 미디어 언어, 미디어 가치, 미디어 비평과 윤리, 미디어 표상 등에 대한 해독을 요구.
미디어 생산 능력 함양	다양한 미디어를 직접 생산해 보고,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얻고 사회와의 소통능력을 향상.

〈표1〉 미디어 교육의 목표 차원

출처: “미디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 김양은(2007), 『한국언론정보학보』, 37호, 91쪽의 내용 재구성.

〈표1〉에서처럼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지식과 미디어의 선별적 이용, 미디어 비평적으로 읽기와 창의적 생산이라는 네 가지 능력을 균형있

게 발전시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둔다. 다시말해, 미디어 교육학의 궁극적 교육목표는 인간의 미디어 선용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나아가 성인들의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키우고, 미디어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더불어 미디어 사용에 자기 고유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의 향상까지를 의미한다(문혜성, 2000).

### 3) 미디어 교육의 내용

미디어 교육 과정안에 포함해야 할 지식 내용을 영역별,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모아놓은 것을 미디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 교육과정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어떤 배경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은 무엇이고, 교수 학습의 주체와 대상을 누구로 두는가?”에 따라서 설계되어진다(김양은, 2007).

김양은(2007)은 미디어 교육의 교과과정 설계에서 보다 명확한 개념상의 구분을 위해서 목표차원과 내용차원의 분리를 시도하면서, 교육내용을 4개의 목표차원(미디어 지식 습득, 미디어 선별적 이용 능력, 미디어 메시지 해독능력, 미디어 생산 능력 함양)과 분리시키고 내용차원의 범주를 ‘미디어(Media)’와 ‘이용자(User)’, 그리고 ‘미디어텍스트(media Text)’의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구분	미디어 영역	텍스트 영역	이용자 영역
정의	·미디어 지식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	·메시지 분석능력 ·미디어 메시지 가치 평가	·미디어사용능력 촉진 ·미디어 제작
세부내용	·여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이해	·여러 언어로서의 미디어 능력 습득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표현방식 습득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평가	·미디어텍스트 분석능력 함양	·창의적 미디어 제작의 실제(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습득)
	·미디어와 사회적 영향력(미디어산업 에 대한 이해)	·미디어텍스트가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평가/태도 형성	·상호작용적 미디어의 이용(미디어의 선택과 이용 능력의 향상)

<표2> 미디어 교육의 내용영역 설계

출처: “미디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 김양은(2007), 『한국언론정보학보, 37호, 93쪽

미디어 교육의 내용영역 설계에서 먼저, ‘미디어’ 영역에서는 미디어 전반에 관한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디어의 전반적인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이를 통해 미디어 전반에 관한 이해와 기초지식 습득 이해에 중점을 둔다. ‘텍스트’ 영역에서는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매체별 미디어의 표현방식을 알고, 미디어가 담아내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읽어내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이용자’ 영역에서는 미디어 사용 능력의 촉진과 미디어 제작에 목표를 두고, 미디어를 단순히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호작용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성호, 서윤경, 강인경(2002) 그리고 이영숙(1998)에 따르면, 미디어교육의 내용은 크게 주제중심, 매체중심, 개념중심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제중심 미디어 교육은 그 사회의 주요한 미디어 논쟁들을 미디어교육과정의 중심적인 지식 영역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주제를 중심으로 잡는 방법론은 현재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들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 주제중심방법론은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매체 중심의 미디어교육과정은 여러 매체를 교육과정의 지식영역으로 선정해, 매체가 미디어 교육의 중심 교육내용으로 설정되면서 각 미디어에 대한 지식습득에 그치는 단점이 있다. 개념중심의 미디어 교육과정은 미디어텍스트와 미디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을 미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앞의 두 접근방법에 비해 개념 중심 방법론은 기호학과 문화이론 등을 포함시키면서, 이데올로기, 도상, 약호, 텍스트, 장르 등의 개념 등을 미디어교육과정에 도입시키는 방식을 띠고 있다(허영주, 2014).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영역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제작, 실천적 참여는 미디어 교육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본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없이 제작 경험만 할 경우 미디어를 표면적으로 가볍게 접해 오히려 오용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으며 제작이나 참여 없이 비판적 이해만 중시하는 것은 미디어에 대해 냉소적 관점을 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적 접근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디어 종류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영화, 뉴스 같은 미디어 종류나 장르를 내세워 미디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교육의 경우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와 사용, 제작 방법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은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이다. 미디어에 나타난 젠더 문제나,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약자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제 중심 교육은 미디어 자체에 대한 교육 보다는 주제 위주의 교육으로 인식될 수 있어 미디어 교육인지 시민교육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는 전체적 접근으로 이뤄지는 교육으로,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공유되는 맥락을 중시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관점을 유지하면서 미디어를 둘러싼 맥락과 산업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김아미, 2015).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런 접근법들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혼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미 두 개 이상의 접근을 혼합해 교육이 실행되기도 한다. 어떤 접근법을 택하더라도 미디어 교육의 핵심

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잘 활용해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 2. 미디어 능력 관점에서의 미디어 교육

미디어 능력의 구성은 기능적인 면에다 중심을 둘 것인지, 미디어의 의미 영역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지만 대개의 경우 기기조작과 의미측면의 두 분야를 혼용해서 미디어 능력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바아케(1991, 1999)는 미디어를 비판하는 능력, 미디어 기기 조작능력,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개혁적/ 창조적 미디어 이용능력 등 네 개 범주로 미디어 능력을 분류했다.

바아케(Baacke, 1997)는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것을 지적하며 제스처와 바디랭귀지, 행동들도 포괄하는 개념을 강조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미디어 능력 개념 역시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능동적 미디어 이용과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 행위까지도 포함시킨다. 그 목적은 실제 교육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행위 지향적 미디어 교육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행위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강진숙, 2005, p.60.).



〈그림3〉 미디어 능력 (출처: 문혜성, 2004. p.84 재구성)

미디어 능력이라는 이론적 개념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나타났다. 이 개념이 발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교육학자 바아케의 '사회비판적 미디어이론'에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미디어 관련 연구의 관점이 개인이나 인간, 미디어를 중심으로 봤다면, 바아케는 그들이 속한 사회로 관점을 돌렸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회비판적 미디어 이론을 바탕으로, 바아케는 계몽사상과 촘스키의 언어능력이론,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토대로 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을 발달시켰다. 이후 바아케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미디어 능력 이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미디어 능력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 세상의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학문, 곧 행동지향 미디어 교육이론을 발전시켰다(문혜성, 2004). 또한 미디어 능력 개념은 단순히 미디어(Medien)와 능력(Kompetenz)라는 용어상의 조합을 넘어서서 '누구나' 미디어를 '성숙하고 성찰적으로' 이용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교육 및 학교 환경의 개선과 함께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 주체를 지향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강진숙, 2005).

### 1) 미디어 능력 개념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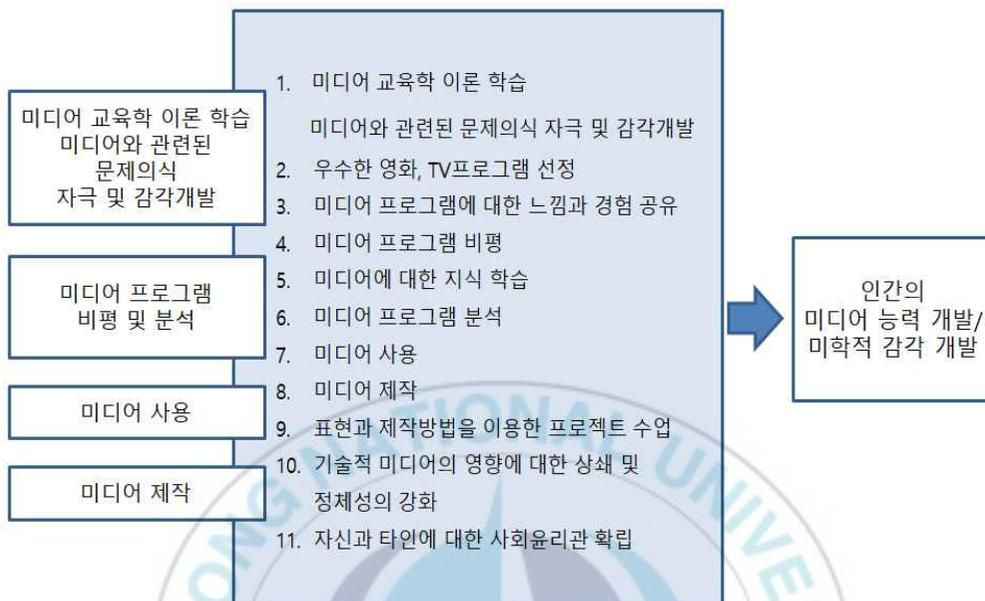
미디어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목표가 달라지는만큼 우선 미디어 능력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독일어로 'Medienkompetenz'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는 'Medien-미디어'와 'kompetenz-전문지식, 능력'의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미디어 교육학적 개념에서는 '미디어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나아가 자신의 인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미디어 선용능력'을 뜻한다(문혜성, 2004).

미디어 능력은 독일의 미디어 교육학자 디터 바아케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 능동적으로 이용, 혁신적, 창의적으로 구성,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현대적 의미로 발전

한 것이다. 바야케가 말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은 '모든 인간의 교육성'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인간의 언어적 행동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한 서로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리킨다.

1970년대 사회과학 담론에서부터 시작된 미디어 능력 개념은, 촘스키의 '언어 능력' 개념이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적 논의와 접목되면서, 바야케에 의해 대화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으로 발전했다(강진숙, 2005). 다시 말해,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 능동적으로 세계를 구성해 나가고 적응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개개인이 자신의 언어적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있는 교육성이나 교육의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현실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문혜성, 2004).

강진숙(2005b)에 따르면, 미디어 능력은 단순히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적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의 비판적/능동적 이용, 혁신적/창의적으로 구성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것은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습득 차원에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미디어의 이해과정, 거기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이용과 구성, 제작을 통해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질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미디어 교육 방법과 교육목표 (출처: 문혜성, 2004, p.150)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기원적 개념을 가진다. 리터러시 능력도 다른 미디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후천적 능력 개념이다. 하지만 능력(competence) 개념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바아케(Baacke, 1999)는 인간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능력의 개념으로 미디어 능력을 정의하고, 미디어 교육의 기본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이행 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인간의 미디어 능력은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능력으로 축진되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 미디어 능력의 축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능력 축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미디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득하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발전, 축진하려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문혜

성, 2004).

최근 미디어 교육은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대한 이해로 이동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서 요구하는 정보력 확대를 위한 인간 능력의 확대(즉, 미디어 능력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미래 미디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미디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인 미디어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김양은, 2009).

## 2) 미디어 능력의 네 가지 구성범주

미디어 교육학에서 미디어 능력 개념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서 제기된 것이 미디어 능력 범주 구분의 필요성이다. 이런 필요성이 나타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구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미디어 사회의 이용자가 가진 미디어 능력의 표출형태를 분석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미디어 이용에서 소극적 주체로 남아 있거나 소외된 주체들을 미디어 교육학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강진숙, 2005)

국내에서도 미디어 능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혜성(2004), 이정춘(2005), 강진숙(2005)의 연구들은 다양한 논의 속에서 미디어 능력을 정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관한 지식과 비평의 측면뿐 아니라 이용과 제작이라는 행위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강진숙, 2007)

바아케(1999)는 실제 학습 상황에서 이행되어야 할 행동지향 미디어 교육을 위한 네가지 능력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문혜성, 2004) 첫째, 지각/지식의 범주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범주로, 이것은 사회적 개념이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지각과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우게 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비판/비평의 범주는 개인적 차원은 포함함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비판적 성찰과 인식을 포괄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비판/비평 능력은 미디어 능력의 네가지 구성범주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데, 비판/비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셋째, 미디어 이용 범주는 행위의 측면으로, 매스 미디어 뿐 아니라 컴퓨터와 인

터넷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수용행위라 할 수 있다. 넷째, 미디어 구성/제작의 범주는 미디어 능력 중에서도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을 기반으로 실제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강진숙, pp.12-17, 2005).

	미디어 지각/지식	미디어 비판/비평	미디어 이용	미디어 구성/제작
사회적 차원	정보적 차원 (미디어 지식과 정보습득)	분석적 차원 (문제 의식과 분석 능력)	수용과 적용의 차원 (능동성)	혁신적 차원 (미디어 체계 개선:대안 미디어)
개인적 차원	도구적-질적 차원 (숙련성)	성찰적 차원 (자기 성찰성)	상호작용성 (전자은행, 전자상거래, 가상토론 등)	창의적 차원 (미학적 형상화)
도덕적 차원	-	윤리적 차원 (사회적 책임성)	-	-

〈표3〉 미디어 능력의 범주 구분

출처: 강진숙, 2005. p. 64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재구성)

### (1) 미디어 지각/지식의 범주

지각/지식은 미디어 능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선차적인 구성범주다. 지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능력으로, 이 능력에서는 미디어 지식에 기반한 미디어의 이해와 숙련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판단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추구하는데 있다(강진숙,2005b).

이 범주는 다른 능력 범주 향상을 위해 기본전제가 되는 분야이다.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어야만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비판과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의 범주 역시 도구에 대한 정보 습득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하고 제작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 (2) 미디어 비판/비평의 범주

비판/비평 범주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비판적 성찰과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판/비평의 능력은 미디어 능력 구성범주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데, 그 이유는 비판/비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에 기인한다(강진숙,2005). 비판/비평 능력은 미디어 능력 구성범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능력이 있어야만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올수 있는 까닭이다.

## (3) 미디어 이용의 범주

지각/지식 범주와 비판/비평의 범주가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이해와 지식과 가치 평가의 측면이라면, 이용의 범주는 행위의 측면에 해당된다. 이용능력이 미디어 능력의 한 범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준거체계이자 사회적 소통을 위한 매개수단으로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강진숙,2005). 강진숙은 미디어 이용의 범주를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했다. 우선, 미디어 이용의 목적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 지향성보다는 도덕성 지향성과 정서적 측면, 미학적 표현형태의 해독능력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이 있다.

## (4) 상호작용 및 구성/제작의 범주

상호작용 및 구성/제작의 범주는 이용능력과 함께 행위의 차원에 포함되는 능력이다. 미디어를 개인적, 사회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형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의적인 표현과 소통의 미학적 형태로 구성/제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강진숙,2005).

앞서 살펴본 미디어 능력의 네가지 구성범주 중 어느 하나를 꼽아 반드시 추구해야할 핵심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능력이란 강진숙(2007)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김소정, 2008). 인간이 어떠한 미디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가는 한 사람의 개인적 전제조건과 미디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달려 있다. 한 개인이 속한 사회적 제반사항 속에서, 교육과 사회화의 과정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인성적, 사회적 전제조건에 따라 미디어 능력의 발달형태도 달라진다. 따라서 현실적 미디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제한상황을 고려하여, 각 학습자의 미디어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문혜성, 2004).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미 환경이 되어버린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전 세대에 걸쳐 요구되며, 특히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미디어 교육들은 청소년의 미디어 능력 함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연구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효과 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

선행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교육 대상자별 접근이나 교육방식이 차별화 돼 있지 않다(안정임 외, 2008)고 지적한다. 교재들이 비슷한 내용 구성과 비슷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며, 이는 미디어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시행 주체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전경란 외, 2015)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수강한 미디어 교육내용은 '네티즌 문화 등 미디어 에티켓 교육'(24%),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교육'(14.5%),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교육'(14.5%) 등 올바른 미디어 이해 및 수용 능력중에서도 미디어 활용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미디어학과 미디어비평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창의적 미디어 생산 능력'중에서는 '기획, 촬영, 편집 등 멀티미디어 제작'(11.5%)만 일부 수강되고 있어 오히려,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에 대한 제작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허영주, 2014).

학교에서 실시중인 미디어 교육의 유형으로는 ‘미디어이용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네티켓 교육’,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올바른 취사선택 능력 함양 교육’, ‘미디어 제작 및 활용 교육’이 다른 교육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작 미디어 교육의 핵심 목표라 할수 있는 ‘미디어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분석 및 비평 능력 함양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능력 함양 교육’이 잘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배상률, 2014).

기존 매체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기존 매체와 인터넷 미디어의 제작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은 더 높았지만 비판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존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이 제작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판능력 향상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홍종배 외, 2009).

그 결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디어 능력 범주가 골고루 함양되는 결과 대신, 교육에 따라 네가지 능력범주 가운데 일부만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비평능력 범주에서는 교육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연구대상	연구내용	미디어 능력범주	효과분석
권주만 외 2007	청소년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미디어 능력 전반	미디어 선택 능력, 분석력, 신뢰성, 창의력 향상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되지 않아
홍종배 외 2009	초,중,고 교생	미디어교육과 미디어능력간의 관계	미디어 능력 전반	제작능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
				비판능력 차이 없어

나경애 2010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	미디어 능력 전반	미디어이용, 비평, 제작, 문제해결 능력 높아져
김용호 외 2012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차별적 효과	미디어 능력 전반	프로그램 유형과 수용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효과
배상률 2014	청소년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미디어 능력 전반	콘텐츠/메시지 분석 및 비평 능력, 자기표현 소통능력 떨어짐
김양은 2014	초등학생	미디어제작수업의 창의 성 변화	제작	표현능력과 창의성 요소에 긍정적 영향
김민영 2017	청소년	미디어 교육 경험과 개인적 성향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비평	미디어 이용, 제작, 참여욕구, 참여능력 유의하게 높아 미디어 활용, 조절, 현실구성, 산업적 동기, 표현욕구 차이없어

〈표4〉 미디어 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미디어 교육과 능력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목표,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강사들이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업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들이, 미디어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나 교육대상자들의 교육 효과 분석에 치우친 결과가 많았고, 교수나 교사 입

장에서의 미디어 교육 분석이 이뤄지다 보니, 강사의 입장에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다룬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 1) 학교와 미디어 교육

현대사회의 필수 과제라 할 만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 장소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차별화가 생기기 때문인데, 이 글에서는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만 살펴보기로 한다. 어느 사회나 학교는 대표적인 공교육 기관으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차세대를 위한 사회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또한 수년간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고 학교 밖의 단체는 학교만큼의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누적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디어 교육이 어떠한 범주로 진행되던 그 효과는 학교가 더 클 수 있다. 학교 밖의 미디어 교육은 각 단체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의 미디어교육을 배우지 않는 한 특정한 교육 목표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 물론 미디어교육의 범주화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학교 밖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년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성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에 맞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은 사회 미디어 교육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미디어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논의가 최근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했으며, 이는 미디어 교육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김은규, 2012). 따라서 역설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방법론의 개발이 활발해져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일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김은규, 2012).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디어 교육이 교내에서 진행될 경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으로 제도화 하는데 있어서 교과 과정과 어떠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 교과를 독립적으로 시행, 기존 과목과 혼합된 형식으로 시행, 특별활동으로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미디어 교육의 교과 도입에 대한 여러 논의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덧붙여 전문성, 실천성을 지닌 교육 주체들의 역량 또한 미디어 교육의 교과 도입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보상교육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이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능동적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미디어 능력이 개발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통합과 참여, 학교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둘째,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실현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학습 환경으로서 자신들의 수업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의 유형과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체계와 교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 교육형태의 출발이다. 여러 과목이나 전문 분야, 미디어에 대한 이론과 기술적 분야 간의 통합형태를 의미한다. 넷째, 전인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성, 행동성, 인성교육 그리고 미학적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 교육이다(문혜성, 2004).

앞서 살펴 본대로 학교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교육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다시금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중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경험하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로 전면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운영 학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고, 자유학기의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이러한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 편성하며, 학교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해 각 활동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15). 이미 해외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사례가 많이 있다.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의 자유학기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이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이다.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는 15~16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같은 시니어 사이클(Senior cycle) 이전에 1년 동안 학교 안과 밖에서 교과과정 및 체험 학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권민성, 2017).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미래 직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중간·기말고사에서 오는 학생들 사이의 경쟁과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에 변화를 주고, 이런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험에 예속된 답습형 교육 체질을 창조형 체질로 전환하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으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가지 영역 중에서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고, 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미디어 교육은 4가지 영역 가운데 주제선택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진로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험 활동	주제선택 활동
목적과 성격	진로탐색 기회제공	학생자치, 자율적 활동	다양한 예술, 체육활동 기회 제공	전문화된 프로그램
학습내용	진로, 직업 관련	학생들의 관심사	음악, 미술, 체육 관련	학생들 관심사
운영방법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교수자	교사와 외부 강사	학생중심 운영, 교사 지원자 역할	교사와 외부 강사	교사와 외부 강사

〈표6〉 자유학기활동 구성 예시 (출처:교육부 자유학기제 활동 운영 매뉴얼. 자유학기제 온라인 정보시스템, 2015)

주로 주제선택 활동으로 분류되는 미디어 교육은 한 학기 8차시에서 17차시 정도로 진행이 된다. 차시가 길지 않은 만큼 앞서 살펴본 미디어 능력의 4가지 범주를 모두 다루기 보다는 주로 구성, 제작과 지식, 비평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교육 이후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이전 강의식 교육에서 지필시험을 치고 성적순으로 평가를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결과를 냈는지를 서술형으로 기록을 한다. 기존의 평가가 성적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해 경쟁심을 자극시키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면,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학교별 특화된 평가 방법을 마련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자유학기제 평가는 형성 평가와 다

양한 수행 평가는 물론 교사 혹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동료들의 평가까지 학습에 유용한 여러 형태를 사용하며(박인숙 외, 2014)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자유학기제 평가의 목적은 꿈과 끼를 살려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단편적이거나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도덕적 가치와 덕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도덕적 문제에 대한 참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민감성과 판단력, 실천 의지를 키워 합리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 편성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참여와 활동 중심)	평가 및 기재 (과정 중심 평가)
	교과	교과	교과
오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제고</li> <li>교육과정 재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li> <li>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li> <li>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실시</li> </ul>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 활동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탐색 활동</li> <li>주제선택 활동</li> <li>예술·체육 활동</li> <li>동아리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li> <li>능동적, 자기주도학습 경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 평가</li> <li>학생의 꿈·끼 관련된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 기재</li> </ul>

〈표7〉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출처:교육부, 2016, 자유학기제 평가기록사례집)

앞서 살펴본 대로 자유학기제 수업은 기존 수업과 달리 비교적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고 시험 없이 서술형 평가만 내기 때문에 암기식 공부나 학업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된다.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면서 수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학기 또는 자유학년제의 경우 한 학년 동안 교과목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학업의 연속성이나 지식적인 측면을 등한시 해, 다음 학년에서의 교과교육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어린 지적도 있다.

### 3) 자유학기제 영상제작 교육의 특징과 효과

영상은 여러 장의 연속된 이미지에 오디오가 더해진 창작물이다. 연속 촬영된 이미지일 뿐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영상제작은 '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상제작이란 영상제작을 '왜 만드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5).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과물을 제작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영상제작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제작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또 내 생각이나 의도를 상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영상물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좋은 인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영상제작의 기본법칙들을 알고 영상제작에 적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2016) 미디어 교수법에는 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제작자로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영상의 메시지 결정 구도 이해해 비판적 사고와 영상매체를 바라보는 시간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영상제작활동을 학습에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영상제작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창작 작업으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므로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 회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하는 결정의 순간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제작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협동학습으로 상호작용 영향을 키울 수 있다. 모듈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제작 활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모듈끼리 상호협력 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력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넷째, 학습동기와 학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각자의 역할을 다했을 때 완성된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역할을 통해 직업탐색을 하고 진로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로 학습동기와 의지를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영상제작교육은 책임감, 배려심, 문제해결 능력 및 분석 능력 등 다양한 부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미디어 교육은 특정한 매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벗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행동 양식에 대한 교육으로 학습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 교양과 능력을 개발시키는 미디어 교육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때문에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유학기제 안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행되는 곳이 늘어났지만, 교육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미디어 교육 환경은 미디어 교육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강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미디어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교 미디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본다. 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과 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사이에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에게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기서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는 직접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 교사가 아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파견된 강사의 수업을 코-티칭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은 미디어강사들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의 진행 형태를 검토하고 미디어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교육과정 안에서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진행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2-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 강사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1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미디어 교육 안에서 행해지는 수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다.

### 연구문제 2-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2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디어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미디어 교육 안에서 행해지는 수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다.

## 연구문제 3.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을 통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미디어 교육은 어떠한 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 연구문제 4. 현행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를 통해 실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 2.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2017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 부산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의 미디어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이다. 그 이유는 미디어 교육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관점과 평가, 제언까지 미디어 교육 강사들의 개인적, 조직적 의견들을 취합하고, 연구문제를 밝혀가기 위한 타당한 질적 논거를 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e-mail 인터뷰 방법도 함께 진행을 했다. 이런 연구방법을 토대로 설정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성과 일반적 특징은 <표8>과 같다.

번호	연령	성별	미디어 교육경력	자유학기제 주교육분야
A1	29	여	3	영상제작
A2	46	여	5	영상제작
A3	51	여	6	영상제작
A4	34	여	8	영상제작
A5	35	여	9	영상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A6	47	여	10	영상제작
A7	39	남	12	영상제작
A8	47	여	12	뉴스리터러시, 뉴스제작
A9	39	여	12	뉴스리터러시, 뉴스제작
A10	48	여	15	뉴스리터러시, 뉴스제작

<표8>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성 및 특징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과 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상충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실시한 인터뷰 참여자 구성과 일반적 특징은 <표9>과 같다.

번호	연령	성별	학교 교육경력	담당 교과목
B1	46	여	17	국어과
B2	42	여	13	수학과
B3	43	여	13	국어과
B4	34	여	7	사회과
B5	35	남	5	체육과

<표9>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 인터뷰 참여자 구성 및 특징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여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교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 가운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선정한 이유는 2005년부터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시행해온 기관으로, 특히 최근에는 매체별(TV, 라디오, 스마트), 장르별(드라마, 다큐, 뉴스, 광고) 특징을 살린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를 파견하며, 해마다 그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한눈에 지역별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던 첫해부터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 왔던 강사들이 대다수로 미디어교육경력이 길게는 15년 짧게는 3년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10명의 강사를 선정했다. 거기에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심층 인터뷰를 보완할 수 있는 e-mail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같은 해 5월 28일부터 6월8일,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강사들은 초,중,고등학생부터 청장년층, 노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 이번 연구에

서는 청소년 대상 교육, 특히 〈부산, 경남지역 2017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 교육목표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었다.

추가로 실시한 교사 인식 인터뷰에서는 중학교에서 근무한지 5년에서 길게는 17년까지의 경력을 가진 국어와 수학, 사회, 체육과를 전공한 5명의 교사를 선정했다.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e-mail을 통한 사전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현황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 능력 함양 및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교육 내 미디어 교육 확산 및 미디어 꿈나무 육성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제주지역 중학교 총 20개 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했고, 그 중 부산·경남지역에서 실시된 18개 학교의 수업내용이 이번 연구의 논의대상이다. 2017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강사를 파견한 학교와 관련 수업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따로 정리를 했다.

2017년도에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학교는 총 20개교이고, 그중 부산,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이 시행된 학교는 18개교로, 영화/영상/광고제작, 스마트로 분류된 교육 프로그램 중 선택적으로 운영이 됐다. 수업은 학교 사정에 맞춰 총 12차시에서 17차시까지(학교에 따라 8차시 커리큘럼을 2회에 걸쳐 진행) 한 한기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각 학교별 교육 현황은 부록 표1과 같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은 부록 표3,4,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 영상제작 수업이 진행됐다.

*“자유학기제 수업이 모두 영상제작 수업만 나간다고 하길래 센터에다 물었어. 뉴스 리터러시 수업하면 안되냐고? 그랬더니 센터에서는 영상제작 교육만 지원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죠. (A9)”*

다양한 미디어교육 이론들이 여러 관련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곤 했지만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접근법으로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도적인(leading) 미디어 교육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최창

섭, 2000).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은 교육대상자와 교육 환경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록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2017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서는 모든 학교가 영상제작 수업을 실시했고, 각 프로그램을 미디어 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 했다. 영상제작 교육도 분명 미디어 교육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리터러시를 포함한 여러 제작교육을 아우르는 미디어 교육의 하위개념이라 봐야 할 것이다.

영상제작 교육을 나가면서 미디어 교육이란 큰 타이틀을 짊어지고 현장으로 나간 강사들은 영상제작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더 많은걸 가르쳐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다.

*“주변에 보면 리터러시를 강화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영화제작수업으로 나가면서도 뭔가를 더 가르쳐야 미디어 능력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불편함이 계속 드는 거죠(A5).”*

이 지점에서 자유학기제 교육을 실시하기 전, 학교와 학생, 미디어 센터 사이에 교육내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정해놓은 영화나 광고제작 같은 몇 개의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에 나눠주고, 강사의 역량이나 교육방향과 상관없이 수업이 배정되는 방식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학교와 강사가 매칭된 이후 강사는 담당교사와 연락해 좀 더 세부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잡아나가는데, 처음부터 강사들이 참여해 자유학기제 수업 모델을 같이 논의해보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도 있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성향이나 원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죠. 일단 센터에서 정해주는 학교로 가서, 정해진 수업을 하거나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아*

보는 거죠(A4).”

“자유학기제에서 진행해 보면 좋을만한 수업형태들을 강사들이 미리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중1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봤더니 결과가 어땠더라,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커리큘럼 안에 빠진 부분은 없을지 같이 의논해보고 교육안을 짜는 거죠. 그걸 센터에다 전해주고, 센터에서는 강사들이 만든 몇 개의 커리큘럼을 학교에 보여주면서 선택하는 방식 말이죠(A9).”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전체 16~17차시로 진행이 되는데, 몇몇 학교는 그 차시를 다시 반으로 나눠 두 기수가 수업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데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기본 소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능력의 고른 발달을 돕기에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수업차시가 배정돼 있는데다 그 외 교육 외적인 요구들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예제때 쓸 영상제작을 원하거나, ‘그냥 영상제작 수업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디어 교육이라기보다 영상제작 수업이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상영을 위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매끄럽게 수정해주길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강사들의 업무가 많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A3).”

A3의 사례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디어 강사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영상제작 때문에 편집이나 후반작업을 혼자 떠안게 되는 부담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으며, A4의 경우 학생 영상제에 참여하고 싶으니 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촬영과 편집을 강사가 직접 해주기를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비단 영

상제 참여나 시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미디어 능력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확보해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 기간은 그저 시험안치는 자유 시간 정도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미디어 교육을 접하면서 실생활에서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저 아무런 부담 없는 방과 후 과정 같은 느낌 않을까요?(A8)”*

*“학생들도 몇 차시만 하고 나면 끝나는 수업이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온 수업이다 생각할 경우엔, 수업 참여도나 결과물에 질이 확 떨어지겠죠. 이후에 다른 수업과 연계되거나 지속적인 수업이 아니니까, 강사나 수업 전체를 만만하게 보는 마음도 생길거구요(A4).”*

자유학기제 교육의 짧은 차시는, 수업 전체의 분위기나 결과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강사와 학생들 간의 라포(Rapport)형성에도 부족한 시간이란 고민도 털어놓았다. 자유학기제의 핵심과제는 처음에는 진로, 다음 단계는 수업 개선, 현재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이 학생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는지 또는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변화해 온 것을 보여준다. 2016년부터 주당 2시간씩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교과와 상관없이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일지 모르겠으나, 부족한 수업시수와 그 외 문제들로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고, 경쟁적인 줄 세우기식 수업이 아닌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 창출형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수업 방식의 적용,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성, 인성, 자기 주도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은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권 보장, 지필 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정 평가와 대안적 방법의 평가 실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학기제의 목표 아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펴낸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사례집(2016)에 따르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미디어·방송 분야의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는 것을 목표로 창의적 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제작활동이 결합된 통합 미디어 교육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 2-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 강사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

미디어 강사들은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밝혀온 대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수용자들의 총체적인 미디어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점과도 일치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능력과 비평능력, 제작능력 및 문제 해결능력 모두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나경애, 이상식, 2010)는 주장에 강사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강사들은 미디어 이용능력과 미디어 비평능력(이해력, 분석력, 비판력)을 미디어 능력 개념으로 보고,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고 답하면서 각자의 수업 커리큘럼 안에 미디어 능력 함양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사에 따라 리터러시 위주의 수업을 하는 강사는 차시별로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 읽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가 하면, 영상제작 수업의 경우 기술에 대한 조작능력과 제작능력에 비중이 높았다.

*“강사들이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짧은 수업차시나, 센터에서 학교수업은 영상제작 수업만 내보내다던지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개념을 함께 길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A2).”*

미디어 교육은 원칙적으로 비판적인 인식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김양은, 2004). 강사들 역시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자유학기제 수업에서는 영상 제작에 치우쳐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해 내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리터러시와 영상제작 수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영상제작 교육만 진행되는 수업의 형태는 강사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실제 2017학년도 한 해 동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한 수업 전체가 영상제작 교육이다. 이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 영상제작만 생각하는 학교 담당자의 의견도 반영된 탓이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담당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학교 측에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애초부터 영상제작 교육만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 나가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모두 영상제작 교육이에요. 짧은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영상제작만 하기 에도 빠듯한 만큼 리터러시나 다른 내용을 담기엔 역부족이죠. 그런데도 영상제작만 하고 오기에는 뭔가 제대로 안 한 느낌이 들어요, 미디어 읽기나 비평 같은 분야를 못한 것 같은 자책?(A4)”*

“다른 기관에서는 뉴스 리터러시(비평) 수업을 주로 하는데, 자유학기제 수업은 영상제작으로 나가는 거라, 나름 운용을 해서 리터러시 교육과 제작을 적당히 섞는 거죠. (A10)”

최근 미디어능력에 대한 접근은 초기의 비판적 성격은 상실되고 도구적 행위, 기능적 능력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윤영태, 2011). 여기서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한다’거나 ‘더 잘 안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반영해 미디어를 바라보고 평가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 미디어 가운데 어떤 것이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를 깨우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미디어 강사들 역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미디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맞게 활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사회참여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한 미디어 능력 함양을 위해 미디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디어 교육의 기본적인 단계, 즉 기본적인 독해와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민적 참여, 협업, 책임 있는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역시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미디어 교육은 리터러시를 통해 민주시민을 기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미디어 체험이나 소통, 창의적 표현과 제작, 책임 있는 미디어 활용이 선행 되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리터러시 개념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A7).”

“미디어 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주장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며 필수 기능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거죠. 자유학기제 수업 목표도 학생들을 주체적이고 원활한 미디어 사용자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작 전에 리터러시 수업이 필수라고 봅니다(A10).”

A10은 리터러시 수업을 주로 하는 강사인 만큼 영상제작 수업을 할 때도 앞 차시에 반드시 미디어 읽기를 배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짧은 차시 때문인지 대부분의 강사들은 영상제작 수업과 리터러시 수업을 아예 별개로 진행하거나, 앞 차시에만 짧게 리터러시를 넣는다는 답이 많았고(A1,A2,A4), 일부(A3,A6,A7)는 리터러시든 영상제작이든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미디어 능력 개념이 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강사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은 영상제작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평소 수업하던 영화나 광고 같은 영상제작 커리큘럼을 자유학기제에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면서, 길지 않은 수업차시 때문에 리터러시 교육은 제대로 교육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미디어 능력에 관한 모든 범주를 골고루 길러줘야 할 미디어 교육에서 강사들은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이란 용어가 미디어 교육의 하위 개념인 영상제작 교육과 혼용되기 때문에 기인한 일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디어 교육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많이 실시하는 신문 활용 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을 미디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 또는 Media Literacy)과 미디어 활용 교육(Media In Education)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미디어 활용 교육으로 여기고 촬영과 편집의 결과물을 원하는 반면, 교육을 하러 가는 강사입장에서는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와 능동적 이용, 창의적 제작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을 염두에 두는 만큼 촬영과 편집 교육만 하고 나온 강사 입장에서는 미디어(영상제작)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제작수업을 하러 들어가지만, 중간 중간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제작수업을 정리하는 차시에서는 같이 감상을 하거나 생각나누기 또는 댓글달기를 하면서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나 능*

*동적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A6)."*

강사 A6처럼 대부분의 영상제작 교육 강사들은 활동과정 안에 포함돼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 애쓴다고 답하면서, 제작활동 안에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학교의 짧은 차시 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미디어 전반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일어날 거라 보긴 힘들지만, 짧은 경험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이 주는 힘을 믿는 거죠.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반 친구들 앞에서 상영을 하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미디어의 유통과 소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A7)."*

강사들은 영상제작 교육을 하면서도 미디어 교육이라는 큰 틀 안의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를 좇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와서 처음으로 미디어 교육을 접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만큼 짧은 차시 안에 다양한 미디어 능력 범주를 다루는 수업을 계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역시 '영상제작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커리큘럼과 강사를 배정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 교육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시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가 영상제작으로만 이루어져있다 보니 학교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디어 교육을 영상제작 교육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

는 것이다.

## 2-2.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라는 표어 아래 2013년 5월에 도입한 학교교육 혁신 정책이다. 같은 해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와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박휴용 외, 2018).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7년에도 현상에선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여전히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된 ‘비판적인 인식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인식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접목된 교육목표와 수업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교사 5명 가운데 4명은 미디어 교육이 제작이나 활용 교육이라 여긴다고 대답하면서, 재밌게 제작하고 결과물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으면 좋겠다며 영상제나 시사회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 학기나 한 학년 동안 영상물이나 책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B1).”*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특히 사회)교과서에서 ‘대중매체’로 언급되는 미디어를 실제적으로 활용해보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B4).”*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 강사와 학교 담당 교사들 사이에 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상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디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 활용교육에 치우친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능동적 활용’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허영주, 2014, 배상률, 2014). 강사들 역시 참여와 자기표현을 통한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방법을 통해 이용능력을 키워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강사 10명 가운데 8명이 자유학기제에서 영상제작 수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2명의 강사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해 주는 수업이 아닌 강사 개인이 학교 의뢰를 받아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했으며, 리터러시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전체 차시의 대부분을 제작활동에 할애했다는 답변을 했다. 영상제작 교육만 지켜본 담당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가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고 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다.

*“요즘 학생들, 유튜브나 해서 영상 찍는데 관심이 높더라고요. 사전 설문 조사에서도 영상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거든요(B3).”*

*“영화나 광고 같은 제작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상영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B5)”*

현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경우, 부록에 나오는 커리큘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학교와 차시가 영상제작을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아니더라도, 요즘 각급학교에서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덕분에 첨단 스마트 기기의 구비는 물론, 와이파이나 그 외 스마트 환경 역시 미디어 교육을 하기에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갖춰져 있다. 거기다 학생들 역시 스마트 기기사용에 능숙해 제작수업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적고 다양한 툴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 편집하는 과정은 유튜브나 그 외 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과 촬영, 편집관련 앱들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있어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터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좀 더 리터러시가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서도, 미디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미디어의 대한 이해나 비평 능력이 없으면, ‘시민성 함양’이란 최종 교육목표도 희미해지고 그야말로 체험수업인 거잖아요. 체험수업이면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거지, 긴 차시 수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 이유는 학교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고, 미디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도 부족하기 때문이겠죠(A8).”*

미디어 교육이 제작이나 활용 교육이라 답한 교사들 가운데서도 교육내용에 관한 고민은 강사들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 이상 미디어의 소비대상이 아닌 생산주체로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인 만큼 영상제작이라는 일차적인 목표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까지 키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순 활용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죠. 요즘 사이버 불링 같은 왕따 문제도 심각한데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성교육으로도 연결되면 좋구요(B1).”*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판적 읽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데다, 미디어 지식이나 비평,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는 미디어 교육 없이는 교육받기도 어려운 영역인 만큼 강사 대부분은 리터러시 교육 확대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여전히 학교

에서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 활용 교육, 특히 영상제작 수업 일 때가 많다보니,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은 영상제작 교육이란 인식이 높고, 실제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강사를 위한 리터러시 재교육은 부족하고 커리큘럼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강사들은 영상제작과 리터러시가 균형을 이룬 주기적인 강사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강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리터러시 수업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미디어 교육을 나가려면 제작기술은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교육이 리터러시인데 강사들부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자연히 학교수업에 녹여내긴 어려운 현실인거죠. 그런데도 미디어센터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10).”*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 미디어 텍스트 읽기와 제작, 미디어에 대한 태도, 미디어 경험과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 등 여러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미디어에 대한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으로 구현된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미디어 능력 함양을 통해 공공생활에 적극 관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두고 있다. 결국 미디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에 관한 리터러시와 영상제작이 병행되는 형태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 교육 환경은 학교와 센터, 강사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의 의미가 상충되면서, 교육주체인 강사 스스로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정체성 확립이 어려워 보였다.

### 3.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

2017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원한 부산·경남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살펴본 결과, 교육주체들 간의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시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커리큘럼부터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17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자유학기제 영상제작 교실과 자유학기제 스마트제작 교실로 모두 제작수업으로만 구성돼 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특징이라고 밝힌 ‘미디어 리터러시와 제작활동이 결합된 통합미디어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학교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활용’이나 ‘제작’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커리큘럼과 강사를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큰 틀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비평을 포함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배제된 영상제작 교육만을 진행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들 입장에서는 비판/비평 교육인 리터러시에 대한 숙제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학기제 수업은 영화제작이나 광고제작으로 나가다보니까 결과물도 나와야 하고, 다른 내용을 넣기에는 모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A5).”*

미디어 교육을 둘러싼 논란의 지점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은 학교 현장,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의 부족이다(김양은, 2005).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맡은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다. 앞서 살펴본 큰 개념의 미디어 교육이 하위개념인 영상제작 교육과 혼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학교현장을 찾았을 때 마주치는 교육 여건에 있어

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담당 교사와의 소통이나 교육 준비과정에서 학교와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을 했다.

*“강사가 학교 사정이나 아이들 능력,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모르고, 그냥 평소 자기 수업을 들고 가는 거죠. 담당교사도 미디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참관식으로 교실에 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러닝, 코-티칭은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A7).”*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맡고는 있지만, 교실 뒤쪽에서 업무를 보면서 왔다 있습니다. 심하게 떠드는 아이들이 있을 때 제지해 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죠. 저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교육이 뭔지, 제대로 교육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수업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B5).”*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관, 교사, 강사가 교육에 대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사나 학교 담당 교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판단할 뿐 이해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A7의 답변 외에도 학교에 가면 직접 열쇠를 가져와서 교실 문을 열고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해서는 또 다른 담당교사에게 부탁해 열쇠를 받거나, 수업을 마치고 교실 뒷정리까지 한 후 다시 문을 잠그고 가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수업 당일에 교실 문을 개방해 놓는다든지 스마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두면 좋을텐데, 강사가 일일이 문을 열거나 기기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귀찮음의 문제를 떠나서, 교실문 하나 열려고 강사가 학교의 행정실이며 교무실을 찾아다니거나 잘 알지 못하는 담당교사를 수소문 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단 물리적인 협조뿐 아니라, 교사가 자유학기제 수업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란 입장도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는 간섭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참의 형태다. 물론 몇몇 강사의 경우, 교사가 지나친 간섭을 할 경우,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을 이해해 준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강사의 경우 학생들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이 커지면서 교육여건이 한층 잘 갖춰진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사와 미디어 강사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넓을수록 효과적이겠지요. 진정한 협력 수업을 생각한다면 교사와 미디어 강사를 동시에 참여시키는 연수와 강의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주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연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이나 학년별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구요, 협력 수업의 능력을 키우는 데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A6).”

“자유학기제 수업의 내용과 질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는 만큼,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죠. 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연수도 적극적으로 마련이 돼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2).”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인데 비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파견해주는 강사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비전문가인 교사라도 자유학기제 주제선택과목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자료가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B4).”

미디어 교육이 자유학기제 수업 안에서 제대로 안착하려면, 전체 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실천 전략이 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자유학기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강사나 담당 교사 모두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현재 학교 미디어 교육은 정해진 틀이 없어요. 교과목마다 해당 학년이 배워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미디어 교육은 뭉뚱그려서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생활기록부 작성을 강사에게 요구하는 교사들도 있는데, 생활기록부 작성도 가이드가 없죠. 어떤 강사는 수업태도, 어떤 강사는 결과물...수업이나 평가나 기준이 없다 보니, 강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A6).”

A6을 포함한 대부분의 강사들이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 학교와 교강사의 협업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 항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강사들은 교재가 학교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사용하기에는 참고수준에 그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카이브 제작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사들은)학교 선생님들처럼 아카이브가 있거나 도움 받을 참고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건데, 강사마다 제각각의 커리큘럼을 들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위가 넓은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려줘야 한다는 가이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 그런 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A3).”

강사들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아카이브나 대상자별 체계화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교재 개발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안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유학기제의 미디어 교육을 위해 개발된 여러 기관의 교육 자료 활용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학교 교실 수업의 맥락, 학생 수준, 교육현장과 동떨어

져 있는 언론 분야 전공 교수들이 집필한 교재들은 활용도가 매우 낮았고, 특정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학기제용 미디어 교육 자료 역시 경험에 기초하지 않아 아이들의 눈높이를 파악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아카이브의 부재, 교재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강사의 보수교육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아르떼 예술강사나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의 경우, 1년에 두 번씩 워크숍을 통해 예술수업과 NIE 수업의 경향과 방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연과 모듈별 주제를 정해 과제를 수행해가는 과정을 통해 최신 교육 트렌드를 익히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의논해 나간다. 또한 언론진흥재단은, 포미(www.forme.or.kr)라는 교육 아카이브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수업 노하우와 자료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데 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의 공유가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전담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거의 일반 교실에서 진행을 하구요, 장비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패드가 있어도 구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폰은 데이터가 없거나 저장용량이 적어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시다(A5).”*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IT환경이, 학교 현장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칫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접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구요(B4).”*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교별로 스마트기기를 갖추고 있지만, 스마트 환경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학교 기기들이 기술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자료를 찾거나 앱을 다운받을 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학교 밖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답답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강사들이 수업시간보다 한참 전에 도착해 자신의 핫스팟을 이용해 앱을 다운받아놓거나 스마트 디바이스의 구동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강사들은 8차시에서 17차시의 교육 안에서 학생 주도형 수업을 구성하려고 애쓰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답을 했다. A6 강사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유행하는 노래나 드라마, 게임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한다. 다른 강사들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영상물을 접하고, 수업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사 개인의 발품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자료들을 제때 찾아내 수업에 활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교육에 사용되는 예시자료와 시각자료를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에 강사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꼽았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하는데 질 좋은 예시자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도 없는 상태고, 그 외 밴드나 SNS를 기반으로 한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강사 개인역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아쉽습니다(A4).”*

강사들은 교육 때마다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개인의 역량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는 아카이브를 마련해 강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고 강의 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일부는 교과서처럼 표준화된 교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1학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내용과 적절한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수라고 답했다.

*“교과서 같은 표준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강사가 외워서 수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1학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과 적절한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A1).”

강사들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교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아카이빙 요구와 양질의 강사 재교육 과정도 필요성을 인식했다.

#### 4. 현행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교육 주체들 간의 유기적 관계 부족, 미디어 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상충, 뿐만 아니라 수준별 교재와 아카이브의 필요성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오랫동안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교과목 편입에 대해서도 강사들은 입장을 밝혔다.

“유럽이나 우리보다 앞서 미디어 교육이 정착된 나라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천되는 곳이 많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가짜 뉴스도 나날이 정교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나아진 상황이 자유학기제에서 8차시 걸어야 16~17차시로만 배우고 있는 거죠(A7).”

담당 교사들도 현재 제공되는 미디어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수업으로 여겨진다고 하며 학생들이 놀이와 흥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미디어가, 놀이와 흥미 이상의 것이 되게 하려면 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과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하위 역량과 잘 구성해서 교과  
과의 성취기준들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겠죠. 수업연계성이 있어야 학생  
들도 집중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할 거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속성이  
필요하겠죠. 현재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체험 느낌이 들거든요(B5).”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이 자유학기제 본래 취지인 진로탐색이란 부분과  
맞을까 하는 의문은 남죠. 몇 개 안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억지로 들어가  
는 경우도 많으니까요(B3).”

미디어 교육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거나 학령기마다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교육 환  
경의 변화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교육이 일찍부터 정착된 유럽과 영미권의 사례  
를 보면,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학교 내에서 독립교과 형태의 미  
디어 교육이 시행되었고 90년대 이후 통합교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  
다. 독일에서는 2000년부터 교육정책을 통해 미디어교육 사업을 시행  
하면서 학년별 미디어교육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실  
험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멕시코주가 미디  
어 리터러시를 교과과정에 도입했으며 각종 미디어와 관련된 비판적  
사고기술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2000년 이후 부  
분적 의무교육으로 미디어 교육이 정착됐으며 타과목과 통합적으로 실  
시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이 교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부터 교육의 범위  
와 내용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한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각 민간단체들도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관련 쟁점들을 정리 중에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로 기대된다.

“특정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교과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이제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은 필수가 됐구요, 주어진 디지털 환경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나날이 발전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A1).”

“우리보다 미디어 교육이 훨씬 선행된 핀란드에서는 전 국민이 생애주기 별로 자연스럽게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T강대국만 내세우지, 디지털을 통해 확산되는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상태죠(A9).”

유럽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핀란드는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이 포함된다.<sup>1)</sup> 핀란드가 이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바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 법제화된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1단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모아 글로 표현하고 말하게 하는 교육이 시작된다. 도서관에서 찾는 자료는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지역 문제나 핀란드의 현안 문제들이다. 기후변화관련 뉴스는 과학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난민 문제 같은 인권관련 사항들은 사회 교과에서 다루어진다. 핀란드 어린이들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첫 단계부터 미디어와 뉴스에서 그 소재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사회, 국가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제작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는데, 이때 지역 언론인들이 교육에 참여해 도움을 준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사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디어가 함께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차원에서 학생에게 뉴스를 제작하게 하는 이유는 뉴스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뉴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비판적 이용, 비판적 평가가 건전한 비판, 평가가 되려면 뉴스를 직접 제작해 봐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과정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매일 수많은 뉴스가 유통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 핀란드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비교 분석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왜 특정 언론은 다른 방향으로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이렇듯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미디어에 관련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디어를 접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결국 미디어 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역량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을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있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각 생애주기별 교육 내용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은 강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정부기관이나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역시, 영상제작이나 미디어 활용 교육에 치우치기 보다는 미디어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강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제작수업을 나가면 예전에는 기획에서 촬영, 편집의 반복이었는데, 요즘은 다른 방식의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 나누고 주제에 맞는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하는 사이, 리터러시가 이뤄지고 이 과정을 통해 제작을 하면서 작품의 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A5).”*

*“이제 미디어 교육에도 스타강사가 필요하고, 연령대별 킬러콘텐츠가 있어야 해요. 자유학기제면 이 시기에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콘텐츠 하나만 보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가 있어야죠. 유튜브를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강사들도 미디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봐요(A8).”*

A5, A8처럼 강사 개인의 노력과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강사들은 우선 제대로 된 정부의 미디어 교육 정책과 교육기관의 교육방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미디어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사회전반적인 환경 탓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디어 교육이 뭔지, 미디어 리

터러시가 될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당연히 미디어 강사에 대한 처우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미디어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여러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미디어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관련학과 교수나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학교 교사들에게 칼자루가 쥐어져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같은데 가보면 학교 교사들 위주로 세션이 마련되고, 토론이나 전체 진행도 교사위주로 돌아가죠. 미디어 강사라고 불러놓고도 관련학과 교수와 학교 교사들이 모든 걸 진행합니다. 미디어 강사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현장에서 교육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을 논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A10).”*

*“교강사가 함께 모이는 전국대회에 갔더니 제가 진행한 수업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한 교사가 자기가 진행한 교육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더라구요. 교사들은 강사들이 들어와서 한 수업의 저작권을 자기 학교에 있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밥그릇 싸움 하는 사이, 강사들만 어디에도 끼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아 서글픕니다(A5).”*

그동안 미디어 교육은 정부 기관이 관여해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졌다(김양은, 2009). 그러나 미디어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등 통일된 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제한적으로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미디어 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모호하고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금이 파편적이고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정부기관의 미디어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단체의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강사 교육과 학교 파견, 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교육 학습 자료와 교재 발간과 배포, 퍼블릭 액세스 차원의 미디어 센터 건립과 운영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 기관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관련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김양은, 2009; 정현선 외, 2009).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방통위, 문체부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산발적이고 때론 중복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매번 어느 부처가 주도할 것인가만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번번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관련 내용들이 폐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에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했고, 미디어 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도 마련을 했다. 미디어교육위원회가 5년 단위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는가 하면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등 학교와 사회의 미디어 교육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가 마련할 계획안에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온 미디어 강사에 대한 전문성 인정과 역할의 범위까지도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결론과 한계

지금까지 〈2017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목표와 현황, 한계점들을 짚어봤다. 앞서 이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제작, 실천적 참여라는 미디어 교육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다. 강사에 따라, 혹은 학교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 교육 커리큘럼이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미디어 교육이란 이름 하에 실시되는 교육들이 사실은 영상제작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전체적인 미디어 교육 역시 아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으로 공교육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7년도 미디어 교육을 지원한 부산·경남지역 18개 학교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이 역시 영상제작 교육에만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수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과 가치, 비평, 상호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줄어들게 된다. 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한 미디어 수용자가 아닌 미디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능동적 수용자로 교육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비평/비판, 가치적 측면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하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매체의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미디어의 특징에 따라 미디어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미디어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상제작 기능 외에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기능적 습득에도 시간을 분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큰 틀을 두고, 영상제작과

미디어 비평과 비판, 미디어 이용 같은 여러 하위분야들이 골고루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시청자미디어센터 역시 미디어 능력의 고른 발달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경우 미디어 능력 함양을 통한 시민성 키우기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대부분 영상제작 교육이 실시되면서 담당 교사들은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활용교육이나 미디어 제작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영상 결과물을 기대하거나, 학교 영상제나 학예제때 상영할 수 있는 작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다수였다. 반면 강사들은 영상제작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제작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교육 주체들 간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해상충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다양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학교 측과 논의를 거친 뒤 수업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과정을 통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행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공교육 내에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돼 있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형성하는 필수3요소로 교사, 학생,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평가름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전윤식, 2004). 특히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공동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정도와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최순화 등, 2008),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이 교육의 한 분야로 공교육 내에서 자리 잡지 못했고 미디어 강사 역시 '교육공동체'에서 '교사'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어정쩡한 상황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관련학과 교수들이 자유학기제 등 제한적 교육이 아닌 학교 미디어 교육과정 체계화 등

공교육 내에서도 안정적인 미디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가져본다.

넷째,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용되는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야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미디어 능력 범주가 꼭 정답은 아닐 것이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역시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화, 발전된 미디어 능력 범주 내에서 학령기에 맞는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과 과목 내에 미디어 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교육을 시작한다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제작과 리터러시를 활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학령기에 맞는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라는 미디어 교육 본연의 교육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현행 자유학기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 교육은 일회성 체험수업과는 달라야 한다. 미디어 교육이 전달해야 할 교육의 내용이 있고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교육은 전체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체험이나 경험 해보는 정도의 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 미래직업탐구라는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적합한 수업 형태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학교 내 미디어 교육은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기준점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강사의 주관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아카이브나 대상자별 체계화된 교재 개발, 지속적인 강사 보수교육은 물론 학교에서도 교사연수 등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학교에 미디어 강사를 파견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현재와 같은 '영상제작' 위주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를 해독하고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사례인 <2017 부산, 경남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사례집>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강사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목표와 현재 상황,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더불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담당 교사들에게도 현행 미디어 교육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인 미디어 강사들의 입장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의 어려움과 인식론적 문제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부족했던 만큼 몇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첫째, 사례분석이 부산, 경남지역에서 실시한 미디어 교육으로 한정되면서, 연구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 전체를 대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부분을 전체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바야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내놓은 미디어 능력 범주가, 매우 추상적이며 이론적 불명확성과 방법론적 문제 그리고 다양한 함의가 혼재하는 문제(윤영태, 2011)가 있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단정할 수 없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영상제작 교육)을 실시한 강사들의 의견과 학교 담당교사의 의견을 물었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강사와 학교 교사들이 전체 미디어 강사와 교사들의 대표성을 띤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뷰와 e-mail인터뷰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계량적 설문조사 방법을 같이 해, 미디어 교육 강사뿐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디어 교육, 더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인식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다 진전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VI. 참고문헌

- 강진숙(2005a).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49(3), pp.52-79.
- 강진숙(2005b). 미디어 능력의 구성범주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6), pp.5-35.
- 강진숙(2007). 미디어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과제와 문제점 인식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 pp.91-113.
- 고수정(2015). 미디어 교육 현황과 실제 및 과제 - 강원지역에서의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권민성(2017). 자유학기제에 따른 협동학습 수업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권주만, 오치선(2007). 청소년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pp.117-138.
- 김기태(2007). 한국 미디어 교육의 성격 분석 및 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37, pp.139-167.
- 김동일, 라영안, 이해은, 금창민, 박소영. (2016).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교원들이 인식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30(2), 345-371.
- 김두정(2015). 자유학기제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 김민영(2017).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 경험과 개인적 성향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남(2005). 발제 7 : 미디어교육 담당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 커리큘럼의 탐색. 『한국언론학회』, pp.143-155.
- 김아미(20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양은(2005a). 발제 5 : 미디어교육 교사의 인식 및 교육실태 조사. 『한국언론학회』, pp.85-99.

- 김양은(2005b). 미디어 교육의 개념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28, pp.77-110
- 김양은(2007). 미디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7, pp.73-99.
- 김양은(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양은(2014). 미디어제작수업의 창의성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pp.459-477.
- 김양은, 안정임(2004). 발제 1 : 미디어교육의 개념 및 학교 미디어 교육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pp.1-17.
- 김용호, 정경순, 남연주(2012).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차별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pp.95-127.
- 김은규(2012). 지역사회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미디어교육 실천방안 연구. 『언론과학연구』, 12(2), pp.200-239.
- 김이경 외(2015).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 김진섭(2015).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나경애, 이상식(2010).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 학보』, 54(3), pp.349-373
- 문혜성(2000). 미디어 교육화의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미디어 선용능력, 『한국 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14(3), pp.47-79.
- 문혜성(2004). 미디어 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울.
- 박휴용, 송진웅. (2018). 교육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갈등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4(2), 7-32.
- 방송통신위원회(2015). 미디어교육 교수법 진단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2016). 자유학기제와 미디어리터러시.
- 배상률(2014).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316.
- 송요셉, 오상화, 김은미, 나은영, 정하소, 박소라(2009). 다매체 환경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방식에 대한 FGI 연구. 『언

- 론정보연구』, 46(2), pp.33-65.
- 안정임(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서울:한나래.
- 안정임 (2013).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 습과학연구, 7(1), 1-21.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 행위, 아동의 이용조절 인식간의 상관관계. 『언론과학연구』, 13(2), pp.161-192.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7).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한국 방송학보, 31(5), 5-49.
- 안정임, 전경란(2005). 학교 미디어 교육 교재 분석. “학교로 간 미디어”, pp.309-354. 서울 : 다할미디어.
- 유진아(2017), 청소년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 - 존 듀이의 민주주의 교육론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윤영태(2011). 미디어교육의 철학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5(2), pp.261-287.
- 이성균, 윤영두(2010).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0(1), pp. 468-476.
- 이혜진(2015).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연구. 『한국방송학회』, pp. 65-66
- 전경란(2015), 미디어리터러시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전경란, 김양은, 김아미(2015). 중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15(3), pp.267-296.
- 전숙경(2017). 미디어는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미정, 한찬희. (2013). 학교 미디어교육 도입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미디어와 교육, 3(1), pp.38-71.
- 정은경(2005),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상덕,신철균,박균열(2013).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1-115.
- 최순화, 김은숙, 권오경, 오창호, 박국태(2008). 제7차 선택중심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교과교사 및 학생들의

- 인식 조사, 『대한화학회지』, 52(1), pp.96-106.
- 최창섭(2000), 한국형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진모델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전문정책연구, pp.1-72
- 허영주(2014). 중·고등학생 대상 미디어 교육내용의 구성 방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2(1), pp.23-47.
- 홍종배(2008). 한국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학회』, pp.147-151.
- 홍종배, 박은보(2009). 미디어교육과 미디어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pp.79-82.
- 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이원태(201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능력 격차 연구. 『한국언론학보』, 56(2), pp.198-225.
- Baacke, D. (1973). *Kommunikation und Kompetenz: Grundlegung einer Didaktik der Kommunikation und ihrer Medien*. München: Juventa
- Baacke, D. (1996). Medienkompetenz als Netzwerk. In: *Medien Praktisch.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2/96, H. 78, 20 Jg. 4~10
- Baacke, D. (1999). "Medienkompetenz" : *theoretisch erschliessend und praktisch folgenreich*. Merz, 1, 7~12
- Ferrari, A. (2012). Digital competence in practice: An analysis of frameworks (A technical report by Joint Research Centre of European Commission).
- Habermas, J. (1968).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a. M.: Suhrkamp
- Habermas, J. (1971). Vorbereitende Bemerkungen zur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Habermas, J. & Luhmann, N. (Hrsg).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Frankfurt/M. 10. Aufl. 19
- Habermas, J. (1978).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a.

Hoffman, B. (2003). *Medienpädagogik*. Paderborn:  
Ferdinand Schöninnh.

Jenkins, H. (2006).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MacArthur Foundation. Available:

Masterman, L. (1997). A rationale for media education, in  
R. Kubey (ed.), *Media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Current perspectives*. New Brunswick &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McQuail, D(2000) *Mass Communication theory* 4th. SAGE  
Publications Ltd. 도준호 · 양승찬 · 강미은(2002). 『매  
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부록

〈부록 표1〉 〈 2017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지원학교	학교 수
자유학기제 영상제작 교실	기획과 구성,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한 드라마, 영화, 광고, 뉴스, 다큐멘터리 제작	동신중학교, 진여자중학교, 백양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덕원중학교, 감만중학교, 재송중학교, 거창대성중학교, 진주동중학교, 호계중학교, 경해여자중학교, 제주동중학교, 한림여자중학교	13개
자유학기제 스마트 제작 교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드라마, 영화, 광고, 뉴스, 뮤직비디오 등 영상 제작	반송중학교, 구서여자중학교, 초장중학교, 양운중학교, 태종대중학교, 지사중학교, 고성동중학교	7개

교육기간 : 2017년 3월 ~ 12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지원학교 성과

- 학교수 20개교
- 수료인원 : 560명 (연인원 5,402명)
- 수료작품 : 121편

〈출처 : 2017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사례집〉

〈부록 표2〉 2017 부산·경남지역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교육 현황

번	학교명	선택 프로그램	교육일시	교육진행	교육수료작	수강인원 (연인원)
1	동신중	영화	03/16~06/01 매주 목 6~7교시	12차시	1편	9명 (107명)
2	반송중	스마트	03/14~07/18 매주 화 6~7교시	16차시	5편	13명 (207명)
3	부산진여중	광고	03/15~07/19 매주 수 5~6교시	17차시	16편	15명 (90명)
						14명 (84명)
						16명 (90명)
4	감만중	영상제작	08/31~12/21 매주 목 5~6교시	15차시	3편	18명 (261명)
5	구서여중	스마트	09/07~12/28 매주 목 5~6교시	14차시	9편	23명 (320명)
6	덕원중	영상제작	08/28~10/23 매주 월 5~6교시	12차시	2편	17명 (202명)
7	백양중	영상제작	08/29~12/26 매주 화 6~7교시	16차시	6편	22명 (194명)
						22명 (154명)
8	양원중	스마트	08/28~12/18 매주 월 5~6교시	12차시	6편	22명 (152명)
						20명 (79명)
9	재송여중	영상제작	08/28~12/18 매주 월 5~6교시	14차시	21편	22명 (151명)
						21명 (146명)
10	재송중	영상제작	09/01~12/22 매주 금 5~6교시	16차시	8편	15명 (118명)
						15명 (120명)

번	학교명	선택 프로그램	교육일시	교육진행	교육수료작	수강인원 (연인원)
11	지사중	스마트	08/24~12/28 매주 목 5~6교시	16차시	4편	13명 (102명)
						15명 (116명)
12	초장중	스마트	08/30~12/27 매주 수 5~6교시	15차시	3편	20명 (289명)
13	태종대중	스마트	09/05~12/05 매주 화 5~6교시	12차시	5편	9명 (81명)
						9명 (63명)
14	거창 대성중	영상제작	08/22~12/26 매주 화 6~7교시	16차시	8편	22명 (163명)
						21명 (155명)
15	경해여중	스마트	08/28~12/04 매주 월 5~6교시	12차시	5편	27명 (324명)
16	고성 동중	영상제작	09/01~12/01 매주 금 6~7교시	12차시	4편	21명 (239명)
17	진주 동중	영상제작	08/21~12/18 매주 월 5~6교시	16차시	4편	26명 (405명)
18	호계중	스마트	08/17~11/01 매주 수/목 5~6교시	16차시	8편	27명 (216명)
						28명 (219명)

〈부록 표3〉 미디어제작실습 제작교육 커리큘럼 (16차시)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1회	미디어로 나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이해하기</li> <li>-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 나 표현하기</li> <li>-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 제작해보기</li> </ul>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이스
2회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톱모션 알아보기</li> <li>- 컷아웃을 활용한 스톱모션 요리 동영상 제작</li> <li>- 스마트디바이스 활용해 촬영법 알기</li> <li>- 완성된 스톱모션 함께 감상하기</li> </ul>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이스
3회	스톱모션 효과를 활용한 영상광고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이해하기</li> <li>- 상업광고와 공익광고</li> <li>- 광고와 영상제작과정 배우기</li> <li>- 이야기 줄기 짜기, 콘티 제작하기</li> </ul>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이스
4회	방송 현업인 특강	특강	
5회	방송 현업인 특강	특강	
6회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광고 촬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영상, 사진 촬영 방법 배우기</li> <li>- 콘티맞게 연출해 촬영</li> <li>- 영상 자료 저장하기</li> </ul>	PPT자료, 유인물, 스마트디바이스
7회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해 광고영상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네마스터 어플을 활용해 편집하는 방법 배우기</li> <li>- 영상 콘티에 맞게 컷편집하기</li> <li>- 장면전환 효과 및 자막 효과주기</li> </ul>	스마트디바이스, 삼각대, 거치대

8회	광고영상을 완성하여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리 이해하기</li> <li>- 녹음 기능 활용해 영상에 맞는 사운드 만들기</li> <li>- 영상 완성해 출력하기</li> <li>- 시사회, 소감나누기</li> </ul>	스마트디바이스
9회	스마트한 단편영화 기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영화 이해하기</li> <li>- 프레임으로 영화읽기</li> <li>- 모듈별 영화 소개 및 아이디어 회의</li> <li>- 영화 소개 발표 및 선정하기</li> </ul>	PPT자료, 유인물, 스토리보드
10회	이야기 발전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놉시스 작성 및 발표해보기</li> <li>- 오디션을 통한 역할정하기</li> <li>- 스토리보드 그리기</li> </ul>	PPT자료, 유인물, 스토리보드
11회	스마트한 단편영화 실전촬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 리딩 및 연습하기</li> <li>- 스토리보드에 맞게 장면 연출하기</li> <li>- 영화 촬영하기</li> <li>- 촬영 결과물 확인 및 저장하기</li> </ul>	캠코더, 삼각대, 스토리보드
12회	스마트한 단편영화 실전촬영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 결과물 중간점검</li> <li>- 영화 실전촬영 및 마무리</li> <li>- 촬영 결과물 확인 및 저장하기</li> </ul>	캠코더, 삼각대, 스토리보드
13회	스마트한 실전촬영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 결과물 중간점검</li> <li>- 영화 실전촬영 및 마무리</li> <li>- 촬영 결과물 확인 및 저장하기</li> </ul>	캠코더, 삼각대
14회	영상편집 기기 활용한 영화편집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편집 순서 익히기</li> <li>- 프리미어 인터페이스 이해하기</li> <li>- 프리미어를 활용해 영상 컷 편집하기</li> <li>- 자막 및 장면 전환효과 넣기</li> </ul>	노트북, 스토리보드
15회	영상편집 기기 활용한 영화편집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운드 효과 넣기</li> <li>- 편집 마무리 및 출력하기</li> </ul>	노트북, 스토리보드
16회	영화 예고편 제작 및 시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 영화예고편 제작하기</li> <li>- 영상 시사회 및 소감 나누기</li> </ul>	스마트디바이스

〈부록 표4〉 광고 제작교육 커리큘럼 (8차시)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1회	오리엔테이션 광고의 이해 - 지면광고	〈지면광고 만들기〉 - 강의소개 - 수업규칙 정하기 - 팀 나누기 - 광고의 종류와 특징 알기 - 4컷 광고 제작, 발표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 카메라
2회	광고의 구성요소 및 제작과정 - 영상광고	〈영상광고 만들기 - 카메라 실습1〉 - 광고의 구성과 제작과정 알기 - 카메라 사용법 - 팀별 영상 촬영, 발표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 카메라
3회	팀별 주제 정하기 및 구성안 짜기	〈카메라 실습2 및 촬영1〉 - 다양한 샷의 이해 - 구성안과 스토리보드 짜기 - 카메라 워킹 체크 및 촬영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 카메라
4회	스토리보드 및 촬영	〈촬영2〉 - 팀별 촬영 - 피드백	영상자료, 노트북, A4용지, 색연필, 사인펜. 스마트폰, 카메라
5회	촬영 및 편집1	〈촬영3 및 편집1〉 - 편집에 대한 이해 - 스토리보드 맞춰 편집하기	노트북, 카메라
6회	편집2	〈편집2〉 - 스토리보드에 맞춰 편집하기 2 - 추가 촬영 및 보완	노트북, 카메라
7회	편집3	〈편집3 및 내부 시사회〉 - 보충 영상 자료찾기 - 세부 편집 (효과, 자막)	노트북, 카메라
8회	시사회	〈편집실습4 및 시사회〉 - 내부 시사회 의견 수렴해서 추 가편집 - 광고 완성하기 - 시사회와 피드백	노트북, 카메라

〈부록 표5〉 영화 제작교육 커리큘럼 (12차시)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1회	미디어에 대해 알고 영화제작 순서를 알아본다	- 수업소개, 강사소개, 학생소개 - 영화 제작 순서 알아보기	자기 소개서식
2회	시나리오의 구조를 파악하고 영화를 분석한다	- 시나리오의 3막 구조, 기승전결 구조 알기 - 단편영화를 감상하고 주제와 내용, 캐릭터 성격 파악하기	프린트 자료
3회	캐릭터를 구축하고 시놉시스를 적어본다	- 한 문장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내용 이야기 하기 (로그라인) - 주제와 내용, 캐릭터 프로필 만들기	프린트 자료
4회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안다	- 행동(지문)이 중심이 되는 시나리오 적기 - 영화촬영에서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알기	프린트 자료
5회	촬영의 기본에 대해 알아본다	- 촬영 연습1 : 다양한 샷 사이즈로 촬영해보기 - 주제를 정해서 5컷으로 표현하기	카메라, 삼각대
6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촬영연습을 해본다	- 촬영연습2 : 카메라워킹을 이용해 촬영하기 - 리허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촬영계획 세우기	카메라, 삼각대
7회	마스터 샷 중심으로 첫번째 촬영을 해본다	- 마스터 샷 중심으로 촬영하고 스크립트 작성하기 - 촬영 후 느낀점 이야기하기	카메라, 삼각대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자료 및 장비
8회	스토리보드대로 두 번째 촬영을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보드대로 촬영하기 2</li> <li>- 인서트와 행동씬을 중심으로 촬영하기</li> <li>- 부족한 부분 생각하기</li> </ul>	카메라, 삼각대
9회	보충촬영을 하고 편집을 위한 준비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촬영을 통해 촬영 완료</li> <li>- 베가스 프로 인터페이스 살펴보기</li> </ul>	카메라, 삼각대, 편집용 노트북
10회	편집 이론을 알고 편집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편집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타주 이론과 편집 이론 : A+B=C</li> <li>- 영상 기본 이론(기술적)</li> <li>- 스크립트를 참고로 하여 컷 편집 해보기</li> </ul>	편집용 노트북
11회	종합편집을 통해 영화를 완성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편집을 통해 세밀하게 컷 배열하기</li> <li>- 자막, 음악 효과 등을 넣어서 영화 완성하기</li> </ul>	편집용 노트북
12회	만들어진 영상을 감상하고 느낀 점 이야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감상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하기</li> <li>- 영화를 만들면서 느낀점을 이야기 해보기</li> </ul>	

#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들 간의 이해상충

노은영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요 약

이 연구는 총체적 시각에서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분석하고자 했다. 2017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강사를 파견한 부산·경남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을 진행한 미디어 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선 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교육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다.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의 제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평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했다. 미디어 강사들은 학생들의 비판/비평능력을 키우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이 아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으로 공교육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데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영상제작 교육 위주로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에서도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나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여전히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활용교육이나 제작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미디어 교육이 과거 미디어 교육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교육주체, 미디어강사, 시청자미디어센터